

이름: 오만지

이메일:

나이: 18

직업: 학생

거주지역: 충북 음성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 2013☐ 2014☐ 2015☒ 처음참여

아침 6시 50분쯤 기상 알람이 울었다. 원래는 일어나서 마자 급식고서 아침을 먹어야하는데 너무 딱히 싫어서 그냥 도망쳐 일어났다. 학교는 비좁은 거대한 건물에 시간이 남아서 한 뽕정도로 잔것 같다.

일어나니까... 우리반 애들이 다 분주하더라.. 왜냐면 오늘은 우리학교 체육대회에 대목이다.

임연경은 화장하고, 장해림은 머리달리고, 자원은 고데기를 하고있었다. 나도 일어나서 반대를 입고 준비하는데 우리반 반대는 해바라기가 포인드다. 그걸 결정하기위해 일대나 싸웠는지... 난 나를 만족한다.

심용성은 없지만... 뒤늦게 제일 앞줄 섰다 bb. 손바닥 마치고 잠깐 쉬고있는데... 들레 장해림이 틴트를 발라주겠다며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그런 걸 보면 좋아하는 면이 아니라 싫다고 했지만...

그날 오늘은 특별하다면서 발라주더라, 이색하고 또 별 다른데 없고 그냥 자라는데 꼭 발라야되나 싶었다.

나는 기사생이여서 불안 걸으면 우리반이다. 우리반도 난가 나왔었다. 그 땀땀이더라는 애들, 머리뜨는 애들, 근데거봐 한창까지... 엄청 복잡복잡했다. 나는 작은칠맛을 들어서 우리친구까지 거는데 힘들어서 죽을뻔...? ㅋㅋㅋ 웃겨서하고 안아줬다가 체조하러 땀 뺀생이 뽕장으로 나왔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반대를 입고있었다. 형형색색의 반대를 보는 재미도 있었다. 새천년체조를 하는데 1년만에 하거라 다 가꿔왔나 싶었는데 몸이 기억하더라. 루게 재밌었다. 중간 부분에 '이이, 이이, 이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교생이 그러니까 뭉치면서 뭐가 하나가 된다? 뽕장을 받았다.

우리반 첫등상은 3번라의 피로했다. 우리반이 워낙 잘해서 별 걱정이 없었는데 실제생명이 되니까 긴장이되더라. 뒤 조금씩 가뿐히 우리가 이겨서 끝났으니까. 중간중간에 애들의 감정이 격해서 목을 많이 앓았는데... 그런건 아닌것 같았다. 공부에 치들있었는데 우리에게 공식학으로 농수없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 체육대회때 목하고 목먹고 그런건 너무 안타까울것이다. 그리고는 끝이다 말아주심판을 보러갔다. 귀뚜라미 너무이러워서 어제 많이 애썼는데도 약간 상황이 되니까 잘 보냈더라. 라방이 옆에 선생님이 계시어서 위를 넘긴것 같다. 가장 큰 실수로는 고운이랑 나랑 둘다 플라잉아웃민들 막았듯이 붙여서 아웃이 되지 않은것이다. 우리가 '아웃아웃' 인척하는데 애들이 아니니까 고운이 원망하더라...? 양도 잘 끝내고 이제 우리반 발라주 차례가 왔다. 제인 잘하라는 8반 애들이랑 붙어서 많이 걱정되고 긴장했는데... 역시 4반 또 해본것같은 승리가게됐다 우리반이랑 연방을 맺은 3학년 6반 애들이 와서 응원해주니까 들쭉하고 과했다. 그리고 씨름 심판을 보러갔다. 김응범씨가 심판을 해주셔서 나는 그냥 순서대로 싸우는 것밖에 없었다. 무섭더라. 한도 장난아닌... 다음으로 우리반도 씨름경기를 하는데 신유정, 구자은, 최원서, 이예민이 나왔다. 그중에 기억나는 애는 신유정이. 신유정은 키도 작고 씨름도 잘하고 팔씨름도 잘하고 양 힘이세다. 작은근육가 많다'가 딱해 하버튼 애가 이런애가 아반데 시작했는데 하명이한테 둘러싸는 거다. '엠티나 걱정이되던지... ㅠㅠ

진짜 지루할 것 같다. 마지막에 넘기질 때 딱! 뒤쳐져 이겼어!! 아잔자 감격해서 내가 울었다.

주변이 씨름으로 놀라는 눈치였고 우리반애들이나서 양양하고 나타났다. 신유정이 되나 앓을 썰던지... 문대사에 손이 바들바들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서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 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marchives.org/>